

## 아림예술제 음악분과 운영 무능의 민낯

저는 제50회 아림예술제 음악분과 성악부분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아림예술제 제16회 경남음악경연대회 운영 관련 행정상의 무능과 운영진의 권위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태도로 저희 자녀와 함께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아림예술제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된 거창군민이자 학부모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아림초등학교로부터 아림예술제 참가 신청 안내를 받고 음악분과 성악부분에 신청하였습니다.

아림예술제 음악분과 참여는 개인신청이 불가하고 학교 단체 접수만 가능하였습니다.

9월 29일 아림초등학교에서 발송한 「아림예술제 당일 일정안내」 공문중 청소년 음악회 안내 문구에는 **종목별 금상을 받은 5~6학년(성악3~4학년) 이상의 참가자는 당일 저녁 청소년 음악회 (2022.10. 01. 토/ 문화원 상설미홀 오후 7시)에 참가, 이 음악회를 통해 도지사상 및 교육감상 선정 (이하 중략) 이라고 안내되어 있었고, 2022. 09. 08 (목) 아림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에서 발송한 공문(아림 2022-32) 또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림예술제참가 준비를 해온 저희 자녀는 청소년 음악회에 참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성악3-4학년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연 당일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음악경연대회 심사발표 확인 과정 중에서 청소년 음악회 관련 안내가 공문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소년 음악회 참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10월 1일 17시 34분 음악분과 김채동

위원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에 대하여 김채동 위원장에게 말하였으나, 위원장께서는 “**학교에 그런 공문과 안내를 보낸적이 절대 없다**”는 대답과 성악부분 3-4학년 금상수상자는 청소년 음악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안내문과 아림예술제 공문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니, 그것은 아림예술제에서 잘못 보낸 것이고, 음악분과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림예술제를 총괄하는 아림예술제위원회위원장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에게 아림예술제 발전과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공문이 아림예술제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일방적으로 보낼수 있는것입니까? 아림예술제 위원장께서 독단적으로 분과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큰 의문이 생깁니다.

**둘째** 아림예술제 음악분과위원장은 나는 그런 내용을 보낸적이 없다. 그건 아림예술제가 잘못된 것이니 음악분과에서는 책임질수 없다고 말하는 음악분과 위원장의 공문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무식한 발언입니다.

아림예술제음악분과를 대표해서 위원장이란 직을 맡고있는 분께서 이런 문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응대가 아림예술제의 권위와 신뢰를 주는 행동이 아닐까요?

각자의 의견이 오간 끝에 위원장께서 확인 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며,

곧 전화가 왔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오시고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 없고, 아림예술제에서 3년전 내용을 그대로 보낸겁니다”

“일단오시고요” 이글을 작성하는 순간 그때의 모멸감이 다시 생각납니다. 저는 저의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원장께서는 일단 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김채동위원장과와 불쾌한 통화로 인한 제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그간 아림예술제 참가를 위하여 노력해온 저의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회에 참석하였지만, 현장에서 운영진의 권위적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다시 한번 절망하였습니다.

A4 종이에 출력한 음악회 리플릿에는 저희 자녀의 이름이 빠져있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출력해온 인쇄 리플릿이라면 시간상 문제로 수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겠지만, 운영진은 A4종이에 프린트한 프로그램 진행안내서에 한 줄 정도 수정할 성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던 김채동 위원장은 로비에 있던 저에게, 누구라는 소개와 진심 어린 사과없이 통화할 때와 똑같이,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저에게 이해를 바라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60년 역사와 전통의 거창순수의 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를 거창군민의 한명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되었던 행사를 다시 개최하게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일은 아림예술제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운영미숙

을 그대로 보여주고 운영조직과 음악분과간 책임전가와 음악분과의 권위적인 운영진의 태도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공식적인 입장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일을 격으면서 아림예술제 음악분과 운영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 또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1.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를보면, 14회,15회 경남음악경연대회(아림예술제) 성악3-4학년 금상 수상자 청소년 음악회에 참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채동위원장은 이부분에 대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회, 15회 대회에서 피아노부분 3-4학년 금상 수상자들은 청소년 음악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컴플레인인 많은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규정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이번 청소년 음악회에 저희 자녀의 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음악관계자, 학부모들이 있을것이며, 이부분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3-4학년부 금상 수상자 참석에 대하여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관현악과 달리 독창과 피아노3-4학년은 청소년 음악회에 참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무조건 금상 수상자가 참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운영진의 친절한 설명 또한 참가자로서 알고싶습니다.

2.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는 운영진의 일방적인 안내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또한 즉각적인 응대가 불가하고, 참가자들의 궁금점은 비슷하거나 같을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질의 문답을 담당자와 유선을 통하여 할것이 아니라,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합니다.

현재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는 로그인한 회원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홈페이지상 일반인의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림예술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 1일 음악경연대회 심사 확인을 위하여 아림예술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허용접속량이 초과하여 접속이 불가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10월 1일 자정까지 지속되어 불편을 겪은 참가자 및 학부모, 음악관계자가 많았습니다. 이 또한 운영진의 개선이 필요부분 입니다.

거창 아림예술제가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타지역의 지원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경남전체의 행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신력있고 신뢰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문의에 명쾌한 해명과 잘못을 인정하는 아림예술제 운영진의 성숙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2022. 10. 03 (월)

심미정( 010-2291-8559)

다. 유약(10/1, 토, 09:00 - )

부분	작품 사항	인솔교사	모이는 장소(총시 40분까지)
선악(1~6학년)	자유곡 1곡	김대중	아림문화사회복지관 대강당 앞 우
페아소(1~4학년)	리코더 2종중 이상	심우연, 허선정	기창고등학교 대강당 입구
페아소(5~6학년)	출연하는 실무별로 악기 종류 다르게 함	김가영	기창문화회관 대강당 입구
관악, 현악, 현악중주	주어진 동기에 의한 작곡	박부도 개별 인솔	셋별초등학교 대강당 입구
	주어진 동기에 의한 주도입형식 가락 짓기	박부도 개별 인솔	아림고등학교 음악실 입구

■ 유의사항  
 학부초와 함께 대회 장소로 이동 중등학교 승합, 중주, 합창, 입구에는 안내별 심사가 아니라 학년 전체 실시함. 합창, 악구 제외된 중주 밴드시 상모(악보를 제외)로 연주해야 함(악보 사용 시 실력 처리함). 독창, 관악, 현악 등 연주자가 필요한 부분은 참가자 본인이 연주자를 데리고 가야 함. 공연 순서 : 공연 2-3일전 아림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곡의 제의된 모든 경연은 반복 없이 연주하며, 심사위원이 곡을 중단할 수 있음. 모든 경연은 비공개로 실시 (기창종합사회복지관 실내 출입 금지).  
 공연 순서 : 악구 - 중주  
 수상자 명단 발표 : 아림예술제 홈페이지에 10월 1일 오후 5시에 게재(반동 있을 수 있음)

■ 청소년 음악회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문화원 상삼미홀 오후 7시)  
**충목별 금상(최고점수)을 받은 초등 5-6학년 이상의 참가자는 당일 저녁 청소년음악회에 반드시 참가를 하여야 하며 이 음악회를 통해 도지사상 및 교육감상을 선정합니다. 연주에 참여하지 못할 시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하여 최선의 연주로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과 최우수상발표는 청소년음악회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당일발표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아림예술제 폐막식행사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합니다.

2022. 9. 29.  
 아림초등학교장

접수 : 2022년 9월 17일(토) 12:00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접수(당일 접수 불가)  
 ✉이메일 : 123mira@hanmail.net  
 ✉음악분과 위원장 김제동 010-3133-7611  
 총무 이미라 010-2542-7184

▶ 참가 신청서는 아림예술제 홈페이지 음악분야 게시판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 작성, 시트하단에 있는 항목에 작성 후 참가 학생이 없는 부분 시트는 삭제 하여주세요.

**청소년 음악회에 관한 안내 -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거창 문화원 상삼미홀 오후 7시**

충목별 금상(최고점수)을 받은 초등 5-6학년 이상의 참가자는 당일 저녁 청소년음악회에 반드시 참가를 하여야 하며 이 음악회를 통해 도지사상 및 교육감상을 선정합니다. 연주에 참여하지 못할 시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하여 최선의 연주로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과 최우수상발표는 청소년음악회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당일발표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아림예술제 폐막식행사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합니다.

아림초등학교 안내장- 첨부 ①

아림예술제 홈페이지 내용- 첨부 ②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수신 수신자명주소 (경유)  
 제목 제50회 아림예술제 행사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1. 협조 대상 지역민에게 및 아림예술제 발전을 위해 깊은 예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아림예술제는 6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우리 고장의 순수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 잠시 중단되었던 제 50회 아림예술제 개최를 안내드리니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명 : 제50회 아림예술제  
 나. 행사기간 : 2022. 9. 29(토) ~ 10. 2(일) / 4일간  
 다. 주관처 : (사)아림예술제위원회  
 라. 행사내용 : 2개분야 경연대회 및 전시 등 부대행사, 기획특별행사의 마. 행사장소 : 거창읍 일원

붙임 : 분리별 행사 추진 계획 1부 "관"  
 (사)아림예술제위원회위원장

수신처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가인자 사무국장 신성규 | 카운터 김형성  
 불주자 시회 인회2022 - 32(2022. 8. 4) | 접수 | http://www.arilje.or.kr |  
 당 50137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2 (2층) | 전화 029-949-9294 | 관음 029-949-9298 | E-mail: s1nkyu@hanmail.net | 홈페이지

9. 협조항목 - 자유곡 1곡, 참가팀이 2팀 이상일 경우 본선 장소(거창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한주-셋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한팀이 참가할 경우 청소년문화회(기창문화연대 대강당)에서 공연을 실시함  
 ※ 초등학교 중주, 합창, 한주는 학년별 심사가 아니라 학년 전체 실시함.  
 ※ 합창, 한주 제외된 전 중주 밴드시 악보로 연주해야 함 (악보 사용 시 실력 처리함)  
 ※ 공연 순서 : 공연 2-3일전 아림예술제 홈페이지 발표 함.  
 ※ 한 학생 두 중주까지만 출현 가능  
 ※ 학교 담당자가 발표할 수 없는 코(제외점수 불가 및 사실상 출전불가)  
 ※ 작곡 제외된 모든 경연은 반복없이 연주하며, 심사위원이 곡을 중단할 수 있음.  
 ※ 모든 경연은 비공개로 실시(거창종합사회복지관 실내 출입금지)  
 ※ 공연 순서 : 악구 - 중주  
 ※ 수상자 명단 발표 : 아림예술제 홈페이지에 10월 1일 오후 5시에 게재· 반동 있을 수 있음  
 ※ 시상 내용 :  
 ≫ 금상(군수 및 교육감상)  
 ≫ 은상, 동상, 장려상(아림예술제위원상) - 올레대문로 시상함.  
 ≫ 대상(경상남도지사상), 최우수상(교육감상) - '청소년음악회'에서 선정함.  
 ≫ 대상 제외된 모든 상장은 추후 각 학교로 배부함.  
 ≫ 접수 : 2022년 9월 17일(토) 12:00까지 이메일 또는 전화접수(당일 접수 불가)  
 ≫ 이메일 : 123mira@hanmail.net  
 ≫ 음악분과 위원장 김제동 010-3133-7611  
 총무 이미라 010-2542-7184

▶ 참가신청서는 아림예술제 홈페이지 음악분야 게시판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 작성, 시트 하단에 있는 항목에 작성 후 참가 학생이 없는 부분 시트는 삭제하여주세요.

● 청소년 음악회에 관한 안내 -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문화원 상삼미홀 오후 7시  
 충목별 금상을 받은 초등 5-6학년(총시 3-4학년) 이상의 참가자는 당일 저녁 청소년음악회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이 음악회를 통해 도지사상 및 교육감상을 선정합니다. 연주에 참여하지 못할 시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학생은 미리 준비하여 최선의 연주로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최우수상발표는 청소년음악회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당일발표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아림예술제 폐막식행사에서 상장과 상패를 수여 합니다.

▶ 학교 담당교사와 음악의 출연자들은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관람하는 가운데

(사)아림예술제 위원회 공문 - 첨부 ③

(사)아림예술제 위원회 공문 -첨부 ④

**제 50회 아림예술제 청소년 음악회**

일시 2022년 10월 1일(토) 19:00  
 장소 거창문화원 상삼미홀  
 주최 (사)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초등학교

**특별공연**

다들아름답게  
 새바람이  
 날아오르네

가인자 사무국장 신성규 | 카운터 김형성  
 불주자 시회 인회2022 - 32(2022. 8. 4) | 접수 | http://www.arilje.or.kr |  
 당 50137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2 (2층) | 전화 029-949-9294 | 관음 029-949-9298 | E-mail: s1nkyu@hanmail.net | 홈페이지

**프로그램**

시청코리안  
 시창극리본  
 유원 (예술감독)  
 유원 (연출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유원 (무용감독)

가인자 사무국장 신성규 | 카운터 김형성  
 불주자 시회 인회2022 - 32(2022. 8. 4) | 접수 | http://www.arilje.or.kr |  
 당 50137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72 (2층) | 전화 029-949-9294 | 관음 029-949-9298 | E-mail: s1nkyu@hanmail.net | 홈페이지

청소년 음악회 리플릿(표지)- 첨부 ⑤

청소년 음악회 리플릿(내용) - 첨부 ⑥